

| 제 목                                 | 출 처    | 보도일자       |
|-------------------------------------|--------|------------|
| 제5회 홍릉포럼 개최... 창조경제 시대<br>홍릉의 역할 제시 | 파이낸셜뉴스 | 2014.11.27 |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 과학기술, 고등교육의 메카로써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온 홍릉단지 내 기관들이 지역과 미래 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고등과학원은 오는 12월 2일 서울 회기리로 위치한 고등과학원에서 '제5회 홍릉포럼'이 개최된다고 27일 밝혔다.

홍릉포럼은 2012년 7월 첫걸음을 내딛고, 이후 4회에 걸쳐 홍릉의 미래와 글로벌 연구 및 교육단지 구상안을 발표하고 나아가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홍릉연구단지의 역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제5회 홍릉포럼에서는 '홍릉, 창조경제 실현과 개방·혁신·융합의 거점'이라는 주제로 창조경제 시대가 요구하는 홍릉단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발표로는 한국 최초로 세계수학자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고등과학원 황준목 교수가 '과학자가 바라본 홍릉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과학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과학창의재단 김승환 이사장이 '창의인재와 융합연구'라는 제목으로 홍릉연구단지가 지향하는 연구 방향과 융합인재상을 제시한다. 이어 권용우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구형건 한국금융공학회 회장, 이장재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홍릉연구단지는 과학기술, 교육, 의료, 문화·예술, 국방 등 각 분야에 걸쳐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모여 있는 수도권의 대표적 지식 클러스터로서, 반경 2km 이내에 위치한 고등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방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울 분원 등의 연구기관과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총 11개 기관이 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김혜민 기자 [bbrex@fnnews.com](mailto:bbrex@fnnews.com)